

종합·해설

신당 당쇄신 내부논란 격화

대선 참패 책임 親盧에 집중 포화…새 지도부 구성도 이견

대선에 참패한 대통합민주신당의
쇄신방향을 둘러싸고 당 내부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신당이 24일 대선패배 후 첫 소집한 의원총회에서는 책임론과 지도체제 구성을 놓고 당내 세력갈등이 표면화됐다. 일부에서는 “도무지 이 당엔 희망이 없다. 문 닫는 게 상책” “모두 다 죽는 길밖에 없다” “도대체 진정성이 느껴지질 않는다”는 등 자조섞인 목소리를 터져나왔다.

의원 91명이 참석한 이날 의총에서 는 먼저 선거폐쇄의 주요 원인으로 ‘노무현·참여정부 심판론’이 대두됐다. 특히 비노(非盧) 진영에 속한 김한길계 소속 의원들이 총대를 메고 “모든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화살을 친노(親盧) 진영으로 돌렸다.

재선들은 “대선패배 후 후보 메시지

가 명료하지 못했다"며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이 안 보인다"고 정동영 전 의장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지도체제 문제는 더욱 뜨거운 쟁점이었다. 먼저, 현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등 비상체제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양형일 의원은 “지금은 당 쇄신위를 만들 때가 아니라 지도부 전원이 사퇴하고 전대를 빠리 치를 수 있는 비상

아고 신내를 빨리 사들 수 있는 미상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임종석 의원은 "청구인과 청이기는 모습은 보

원은 “최고위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다”며 “비상체제로 가야 한다”고 각각 말했다.

새 지도부 구성을 놓고는 경선론과 합의주대론이 갈렸다.

정동영계 소속 문학진·양형일 의원과 김한길 그룹 소속 주승용·조배숙 의원은 “경선을 통해 치역하느라 서트재 386 그룹은 ‘노무현 정부 심판론’에서 자유로운 한나라당 출신의 손학규 전 지사를 차기 당 대표감으로 거론하고 있는 반면 친노그룹은 이해찬, 한명숙 전 총리와 강금실 전 법무장관, 중진그룹은 정세균, 문희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을 꼽으면서 서로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분위기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굳은 표정의 신당 지도부 대통합민주신당 정대철 상임고문 등 지도부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및 상임고문단 연석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 /연합뉴스

“한국 이념적 극단주의서 新실용주의로”

美 뉴스위크誌 대선결과 분석

“이념적 극단주의자들의 시대에서 실용주의적 중도 노선으로”

지난 19일 실시된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압도적 표차이로 당선한 데 대해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한국민들이 그간 노무현 대통령이 보여줬던 혼란과 혼란한 수사 대신 현실적이며 가시적인 경제성장 목표를 선택한 데 따른 결과라고 보도했다.

뉴스위크는 2002년 대선 당시 월드

컵축구 준결승전 진출과 7%의 국내총생산(GDP) 성장을 달성 등 역동적인 한국의 모습과 5% 수준으로 떨어진 GDP 성장률과 두자릿수의 청년실업률 등 현재의 경제문화 상황을 대비하면서 한국인들의 선택은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는 ‘실용주의’였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한국의 민주주의가 성숙함에 따라 중간계층이 주도하는 미국의 선거행태와 유사한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분석 못한 이 대통령 당선인의 ‘하는 능력’에 한국민들이 주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 당 대건설에 입사한 뒤 ‘가장 러리맨’의 신화를 창조해내 서울시장 재직시 청계천 노 교통난 해소 정책 등의 성 하며 이 모든 것이 노 대통 약속한 사회복지 확대와 사 완화를 실현하지 못한 것 이룬다고 지적했다.

낙서 대서후부 총서 출마하나

17대 대선에서 고배를 마신 낙선 후보들이 정계 개편의 분수령이 될 또 하나의 빅매치인 18대 총선을 앞두고 어떤 선택을 할지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대 국회 등원 도전 가능성에 대해 손사래를 치는 사람에서부터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는 경우, 이미 출마쪽으로 결심을 굳히고 불밑 채비에 들어간 경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이 연

출되고 있는 양상이다. 대통령민주신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했던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측은 일단 “당분간 이선후퇴, 백의종군이 기조로, 전당대회에 불개입할 뿐만 아니라 현재로서는 총선 출마 등 정치활동에 대해서도 일절 결론하고 있는 바 없다”고 익히 출하고 있다.

정 전 장관 스스로 지난 21일 신당 최고위원-상

임고문단과의 오찬에서 “대선 패배는 제가 부족한 탓”이라며 당분간 백의종군의 길로 들어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내년 4월 총선에서 보수의 광풍이 예고되는데다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전면 적진을 치는 민노당은 “제가 부족한 탓”이라는 입장인데다 민노당의 유일한 지역구(경남 창원) 의원으로서 비교적 지역구를 탄탄히 관리해 왔다는 점에서 재선 도전 가능성 쪽에 상대적으로 무게가 서리고 있는 법의기이다.

민주당 이인제 의원은 비록 대선에서 낙마했지만 총선을 통해 부활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이 의원은 현재 자신의 지역구인 충남 논산시를 금산에 출마할 예정이어서 같은 지역에서 총

이번 대선에서 단일화 압박에도 불구하고, 독자노선을 고수했던 창조한국당 문국현 공동대표는 “위밍업이 끝났을 뿐”이라면서 총선을 향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당 내부에서는 문 대표가 ‘정치 1번지’의 상징으로 있는 종로나 ‘강남권 심장부’인 강남, 또는 ‘중소기업 강국 건설’ 브랜드를 살릴 수 있는 구로 등 서울 외곽 지역에서 출마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연합뉴스

The advertisement features a large, bold Korean title at the top: "고객감동의 새로운 비지니스파트너 앤체" (New Business Partner for Customer Satisfaction). Below the title is a horizontal banner with the text "인테리어 디자인 가구 제작" (Interior Design Furniture Manufacturing) repeated twice. The main visual consists of a large black office chair on the left and a grid of smaller images showing various office chairs and a long sofa in different colors (black, grey, white) on the right.